

조선형 실 비취 산책 21

나의 영혼

여기는 캘리포니아 실 비취, 노인 촌, 우리 집은 골프 코스가 바라보이는 곳,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신선 하다. 정돈된 정원, 스프링클러가 잔디를 적시고 있다. 내처와 나는 여기를 에덴동산으로 생각 한다. 오늘이 7 월 1 일, 아침 온도는 68 도, 오후에는 80 도, 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어제 저녁 7 시에 이웃 노인네들과 마을을 걸었다. K 박사는 89 세, 내 선배 P 박사 88 세, H 박사 90 세, Y 집사 86, 내가 80 중반, 제일 젊다. 산책 하고 난후, 골프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화를 즐기며, 해가 진후 집으로 돌아왔다. 대학교 교수로 은퇴 한 노학자들, 젊었을 때는 학문 추구, 성취의욕에 분주 했고, 영혼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요새는 대화 하는 중, 영혼에 관심을 보인다. 나도 영혼에 관해 깊이 생각 한다.

K 박사님, 요새는 어떻게 소일 하세요. 아침엔 오랫동안 기도 하죠 매일요? 네 어떤 기도를요?
자녀와 친척, 친구들을 위한 기도지요.

옆에 있는 JP 박사, 저명 했던 물리 학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 물리학자 견해로는 영혼(Holy spirit)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혼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인 wave, God's representation within our universe as ubiquitous wave, the wave as pure energy invisible to material world.

JP 박사는 Wave 와 Particle 은 동양 철학의 음양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 wave 는 particle 도 되고, particle 은 wave 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obert Lanza, Chief Scientific Officer at Astellas Institute 는 사람이 죽은 후 육신은 없어지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자로 남는다 한다. Lanza 박사의 생명체 중심 (Biocentrism) 의 이론은 과학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particle 로 남아 영구히 남는다 한다.

나는 영혼이 내 생명체의 원동력 이라고 확신 한다. 내 어머니가 내게 준 염색체(chromosom) 23 개, 내 아버지가 준 똑같은 수의 염색체 23 개로, 내 육체의 DNA 가 구성이 되었고, 내가 어린 시절, 청년기를 거쳐 오늘의 노인이 되었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한 원동력은 보인지 않은 영혼이다. 내 몸은 늙어서 없어 질 지라도, 영혼은 하나의 Particle 로 남아 있는 것 확신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창 2:7)”

늙어도 서글프지 않다. 내 몸이 죽은 후, 내 영혼은 예수님을 따라 다닐 터이니, 무슨 슬픔과 걱정이 있을 것인가?

젊은 과학자로, 교수로, 기업인으로 활동 할 때는 영혼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은퇴하고, 석양 길에 오르니, 영혼을 생각 하게 된다. 내 처에게 맞는다.

죽은 후 어떻게 될까? 예수 믿고, 기도 하고, 예수가 가르친 대로, 이웃을 사랑 하면, 죽어서 천당 가요

사람에게는 다른 생물체와 달리, 창의적인 생각을 할 능력이 있다. 엉뚱한 견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기존의 생각이 아니라, 틀을 부수고(out of box)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오늘의 인공 지능과 초능력의 기계 인간 (supper intelligent machine)의 등장은 우리의 창의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창의력은 의식(consciousness)에서 온다. 영혼은 의식의 원천 이다.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은 존재 의식을 느끼고 생각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빚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창세기를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내 육신이 늙어 흠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 당연한 원리다.

침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관장 하시는 하나님, 17 세기에 하나님의 섭리 일부분을 설명해 주었던, 스피노자(Spinoza)의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며, 침묵으로, 사랑으로, 내가 영혼을 축복 해 주신다.

주님, 이 좋은 곳에서 노년을 지내게 해 주신 것 감사 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시는 날 까지 힘든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 없이 주님 품으로 갈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 읍소서

80 중반에, 이 기도를 반복 하며, 나는 늙어 가는 것에서 완숙한 행복을 느낀다. 내쳐와 함께 기도 하고, 분주히 친구들과 왕래 하고, 계속 궁금한 일에 탐구 할 수 있는 기쁨, 젊음이 부럽지 않다.

조선행

2017 년 7 월 1 일

seon@cho.com

-----끝-----